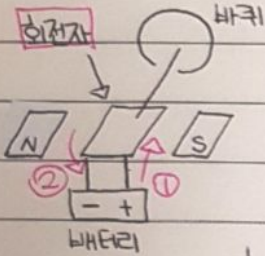


1904 <전기 자동차>

Q1 [전기 자동차 → 운행 거리 ↓] 문제1

그래서? [회생 제동 장치 : 제동시 버린 E 재사용] 해결1

Q2-3 「배터리식 주입 문단」 → [전동기] arabozza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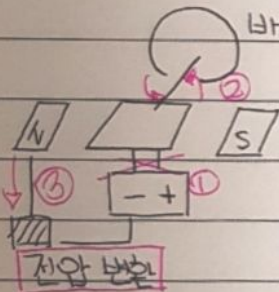
① 가속 ON → 회전자 도선에 전류 공급  
자석 자기장 + 도선 자기장 → 전자기력

② 회전자 회전, by 전자기력

∴ 전동기 : 전기 E (전류) → 역학적 E (회전자 회전)

+ 비례 / 반비례 check: 회전력 ∝ ① 전류 세기  
② 자석 자기장 세기

Q4. 그런데, 제동시 전동기는 발전기가 됨.



① 제동 ON → 전류 차단

② 바퀴 (회전자 돌림) (E 소모!)

③ 회전자 회전 + 자석 자기장 → 전기 E

바퀴 운동 E 감소 → 제동

전압 변환 장치 : 전기 E 배터리에 저장

Q5 회생 회생제동장치 : [단독일 때 제동 효과 ↓] 문제2

왜? [운행 상태 ① & 배터리 충전 상태 영향 ②] 이유2

① → 큰 제동력 필요시 - 단독으로 제동 불가 (힘 ↓)

② → 배터리 만땅일 때 - 회생 전기 저장 X, 회생제동 OFF.

그래서? [마찰제동 장치와 같이 사용] 해결2

Q6 해결2의 과정

제동 페달 ① → 전자 제어장치 ② → 회생 & 마찰제동 ③ & ④

① 제동페달 센서 : 전기 신호 전달

② 전자 제어장치 : 계산 & 통제, [회생제동 제동력] → ③

[전체 제동력] - [회생제동 제동력] → ④

# 1904 < 불법행위 >

91 **불법행위**: 타인의 권리 침해, 손해 야기.

∴ **불법행위법**: 손해 배분하여 불법행위 억제.

~~그런데~~, [책임 원칙에 따라 **손해 배분**, **억제 효과** **달라짐**] 문제!

그래서? [법정제한 → 효율적 억제 위한 책임원칙 모색] 해결!

92 **주의 수준**: 가/피해자가 불법행위 억제에 기울이는 주의 정도

+ 비례/반비례 check **주의 수준** ↑ → **주의 비용** ↑, **불법행위 확률** ↓, **손해** ↓

**주의 기준**: (주의 비용 + 손해) 최소화점. 법원이 정한 주의 수준

## 93-4 I. 가해자 책임 여부만 고려하는 원칙

① **비책임원칙** A: 가해자 배상 X ∴ 가해자 주의 수준 ↓

B: 불법행위 억제 X

② **엄격책임원칙** A: 가해자 100% 배상 ∴ 가해자 주의 수준 ↑

B: 불법행위 효율적 억제

③ **과실원칙** A: If 가해자 과실 → 100% 배상

가해자 과실 X → 배상 X

B: 가해자 → 법원 주의 기준 지켜야 함 ("손해배상 사...")

★ ①, ② 공통점 → 가해자 주의 수준 고려 X

②, ③ 공통점 → 불법행위 효율적 억제.

## 95 II. 가해자 + 피해자 책임 동시에 고려하는 원칙

① **기여과실** A: 일단 과실원칙 적용 (I-③)

\* If 가해자 + 피해자 동시에 과실 (양반의 과)

→ 피해자 손해 100% 부담

B: 가해자 + 피해자 최저의 주의 수준 요구.

~~그런데~~, [피해자 과실] < [가해자 과실] 이어도, 양반하면 가해자 배상 X] 문제!

96 [② 비교과실] <sup>하위</sup> A: 일단 과실원칙 적용 (I-③)

If 가해자+피해자 동시에 과실

→ 과실 크기 비례 손해 부담

B: 가해자 + 피해자 모두 주의 수준 ↑

불법행위 효율적 억제.

## 1904 <자기 조절>

Q1 [인간 → 도덕규범 일면서 비도덕적 행동을 해. 왜?] <sup>목적!</sup>

[자기 조절: 목표 달성 위해 사고·감정·의·행동 등 change!] <sup>원인!</sup>

자기 조절 실패 = 목표 달성할 때.

[자기 조절 대표적인 2가지.] <sup>해결!</sup>

## Q2 I. 사회 인지 이론 by 반두라

자기 조절 능력 = 선천적. 인간 → get 가치 + avoid 두려움!

★ 자기 조절 3단계 ← 과정. 40% 선지 나올 것.

① 자기 감열 → 감정 배제 후 자신의 상황/행동 관찰.

② 자기 판단 → 자신이 할 행동 결정!

이런 사항: 개인적 표준 (내적 기준), 현재 상황, 행동 이후 결과.

③ 자기 반응 → 행동 이후, 자신에게 칭사 부여

○ 개인적 표준 부족: 만족감, 긍지 ⊕ 칭사  
○ 개인적 표준 부족 X: 죄책감, 수치심 ⊖ 칭사

## Q3 II. 자기 효능감 이론 by 베티마이스터

사회 인지 이론 (I) 들 유지 + 심리현상에 대한 자연 과학적 근거.

자기 조절 = 에너지 + 개인적 표준 + 모니터링 + 동기

에너지 (E) 양 → 목표 성취에 결정적

그러나, 비상시 대비하여 남긴 E 존재 → E 원천 고갈 X

Q4 ★ I, II 공통 의견: 비도덕적 행동 = 자기 조절 실패의 결과.

I: 도덕적 표준 어긋때 죄책감 생각 → 자기 조절 성공!

그러나, 자기 만책적 사고 → 죄책감 예측 X → 자기 조절 실패...

따라서, 목표 달성을 통한 자기 효능감 신장 중요

효능감 = 자기 조절 성공 가능성의 신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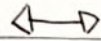
II: 에너지 소모 투자 → 자기 조절 능력 ↓ (a.k.a. 자아소모)

→ 자기 조절 과업 수행 X

따라서, 목표 달성 경험 + 연습 통한 자기 조절 자동화 중요.

자동화 = 이전보다 E가 적게 드는 현상

18. <보기>



지문

이론법적으로 생각합시다.

[전기 소모 X]

Ⓐ, Ⓒ

제동 ON

[전기 소모]

Ⓑ, Ⓓ

가속 ON

자 그림, 그대로 선지에 입혀봅시다.

① Ⓐ에서 회전축은 **중력**이 돌리고, 제동할 때 회전축은 **관성**이 돌리죠?

둘이 대응된다는 게 보이시나요!

② Ⓑ에서 '전동기'가 사용됩니다.

본문 43에서, "결국 전동기는, 전기 E를 운동 E와 같은 역학적 E로 바꾼다"

고 하였으므로, 맞는 선지!

③ "도선에 공급된 전류" → 대가 울트라 X

Ⓒ는 전기 안먹어유..

④ Ⓐ, Ⓒ는 ~ 제동시와 유사하다. 맞죠?

⑤ Ⓑ, Ⓓ는 ~ 전기가 필요하다. 맞죠?

**TIP** \* 이렇듯 지문에서, 대조적인 항목들을 주면,

<보기>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
① 대조적인 항목들과 **대응**하는 무언가 → **대응제표**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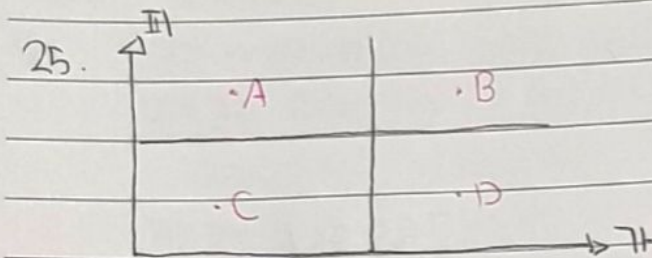
이 경우, <보기>의 요소들을 지문에 대응시켜 풀어야 합니다.

② 지문의 모든 항목과 **대조**되는 무언가.

대표적 예로는, "콘크리트" 지문이 있습니다. (17년 9월 모평)

이럴 때는, <보기>의 요소가 지문의 것들과 **차이나는 점**이 묻지,

또 그 속에서 공통점은 **없는지** 등을 차근차근 따지시면 됩니다.



Tip ✨ 선지를 두부분으로 (클마 앞/뒤) 나누면,  
 압축은 비교과 수은 사실 일치이므로 앞부터 체크합니다.  
 아쉽게도, 어찌 오답은 없네요.

① A → 가해자만 과실 이음,

비교과실 → 가해자 100% 책임입니다.

② B → 둘다 과실 ✕

과실원칙 → 가해자 배상 책임 ✕

③ C → 둘다 과실

기어과실에서 행위인 오 → 피해자 100% 책임입니다.

④ A, C → 가해자 과실

과실원칙 → 가해자 100% 책임입니다.

⑤ 비교과실에서 피해자 + 가해자가 책임을 부담하려면,

둘다 과실이 있어야겠죠?

가해자가 착한 사람인 순간 → 부담은 없습니다.

Tip ✨ 지문에서 여러 항목이 나올 때,

제가 지문 정리한 것처럼 항목들 간 차이 공통점을 정리하고 들어가면

문제가 훨씬 쉬워집니다.